감사의 비결

본문 민수기 11:4-23 · 2026년 11월 22일 소그룹 모임 · 설교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오전예배

설교 요약

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전한 말씀입니다. 본문에는 감사가 한 군데도 없고 불평만 가득합니다. 설교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, 무엇이 불평을 그치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지 말씀했습니다.

1. **백성의 불평, 그 뿌리는 탐욕**
   만나밖에 없다는 불평의 원인은 굶주림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. 탐욕은 쉽게 퍼지고, 가진 자에게도 찾아오며,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.
2. **감사의 비결 ① 자족을 배우라**
   탐욕을 이기는 길은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. 자족은 저절로 오지 않고 훈련해야 하며, 하나님의 품 자체를 귀하게 여길 때 자랍니다. 게으름과는 다릅니다.
3. **모세의 불평, 사명의 무게와 의심**
   모세는 백성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무게에 눌려 죽여 달라고까지 했습니다.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그는 고기 문제를 의심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.
4. **감사의 비결 ② 믿음**
   하나님은 '여호와의 손이 짧으냐'고 물으셨습니다. 의심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며, 믿음은 현실 너머의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. 믿음이 감사를 낳습니다.

결론 ·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태도이므로, 자족과 믿음으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자는 초대입니다.

핵심 포인트

-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입니다.
- 탐욕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하여 감사를 막습니다.
- 자족은 저절로 오지 않고, 하나님의 품을 귀하게 여기며 배우는 것입니다.
- 자족은 감사의 출발점이고, 믿음은 감사의 완성입니다.

감사의 비결

본문 민수기 11:4-23 · 2026년 11월 22일 소그룹 모임 · 설교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오전예배

마음 열기

가볍게 시작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다가 새삼 고맙게 느낀 사람이나 물건이 있나요?

나눔 질문

1. 요즘 '이것만 더 있으면' 싶은 아쉬움(자녀, 건강, 노후와 경제, 일터, 살림 등)은 무엇인가요? 그 마음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작아 보였던 때도 있었나요?

2. 눈앞의 큰 문제(자녀 걱정, 부모님 돌봄, 건강 검진, 일자리와 노후 등)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신 일이 희미해졌던 적이 있나요?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도우셨나요?

3. 자족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이번 한 주 내가 해 볼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? (예: 감사 세 가지 적기, 비교하지 않고 하루 보내기, 걱정을 기도로 바꾸기 등)

이번 주 적용

- 매일 저녁 오늘 받은 은혜 한 가지를 당연한 것이라도 찾아 적어 봅니다.
- 지금 가장 걱정되는 문제 하나를 놓고, 하나님이 지난날 도우신 일을 떠올리며 기도해 봅니다.
- 나와 남을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'하나님의 품이 족하다'고 짧게 고백해 봅니다.

기도 제목

- 더 가지려는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족하게 하소서.
-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.
-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심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.
-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 동안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소서.

나눔 메모